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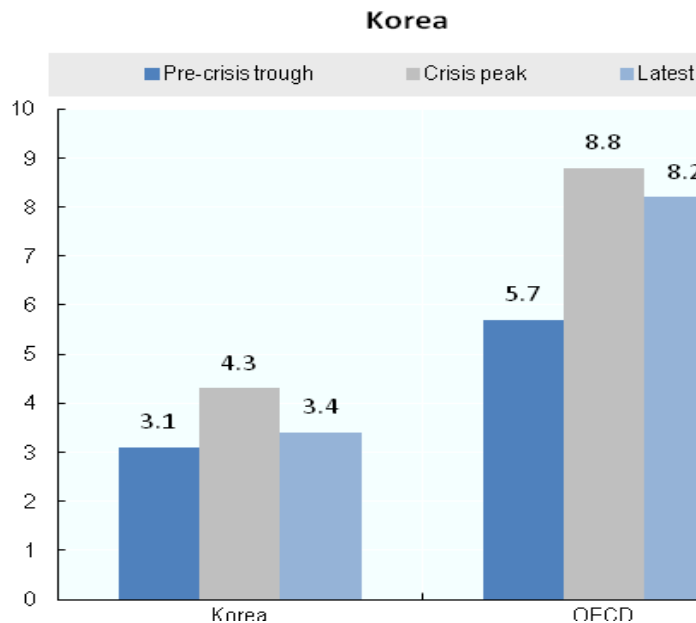


2011 OECD 고용전망보고서 - 대한민국은 고용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2008-2009 년 간의 전세계적 경제위기 충격으로부터 매우 빠르게 회복하였다. 2011 년 오이시디 고용전망보고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급속한 회복은 여타 오이시디 회원국 대비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었던 노동시장성과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2011 년 2/4 분기 계절조정실업률은 3.4%로서, 최고치(crisis peak)를 기록했던 2010 년 1/4 분기의 4.3% 보다 많이 감소하였고, 위기 이전 수준인 3.1%에 근접하고 있다 (아래 도표 참고). 한편, 2011 년 2/4 분기 오이시디 전체 실업률은 8.2%로서 최고치였던 8.8% 대비 약간 감소하였지만, 위기 이전의 5.7%와 비교하면 여전히 2.5% 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위기로 인한 실업의 여파는 특히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및 미국에서 크게 나타났다.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실업률, 한국 및 오이시디

전체 노동력 대비 OECD 계절조정 실업률 (백분율)^a



a. 계절조정 데이터. 최고치와 최저치는 시계열 실질 GDP 를 사용하여 산정

자료: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대한민국의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는 여타 오이시디 국가와 비교할 때 충분치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이시디 보고서는 각국의 실업보험 및 기타 공적 소득보조 프로그램이 이번 위기 상황에서 고실업에 따른 생활수준 저하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오이시디 국가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소득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업자의 실업보험 수급기간이 길지 않고, 약 35%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2011 년 오이시디 고용전망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21 개 회원국 (총 회원국은 34 개국) 중 가계의 근로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이전



시스템의 역할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민국은 한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할 경우, 여타 가구원의 노동시장 활동을 통해 그 감소분의 2/3 를 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오이시디 국가에서는 이같은 자구 노력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보다 광범한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이시디는 대한민국과 같이 실업자에 대해 제한된 소득안전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고 권고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이번 위기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을 기존 26 주에서 99 주로 잠정 연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였다.

고용손실은 미숙련 (low-skilled) 인력 및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전체 고용은 이미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2011 년 1/4 분기 현재 청년 (15-24 세) 고용은 3 년전과 비교시 5.4%가 감소하였다.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3 년전 대비 9%가 감소하였는데, 대부분의 오이시디 회원국에서도 이들 두 근로계층에 대한 악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이시디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번 침체에 미숙련 근로자(저학력자)가 가장 큰 악영향을 받은 국가에 속한다. 실제로 위기 이전에도 청년, 특히 저학력 청년의 고용률은 저하하고 있었으며, 오이시디 평균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오이시디 고용전망보고서는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해 이들 취약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이시디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취한 정책, 특히 취약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해 일정한 소득지원,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묶어서 실시하는 새로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은 금년 고용전망보고서에 기술된 것처럼, 최근의 한부모 및 독거인 대상 사회부조 인상, 장애급여 수급자 증가 등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다.

OECD 2011 고용전망보고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OECD website** 에 접속하시거나, OECD 홍보과에 요구하실 경우 기자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 코멘트를 희망하시는
기자분들은 OECD 고용분석정책과의 Mark Keese (tel: +33 1 45 24 87 94 or e-mail:
mark.keese@oecd.org) 또는 정형우 (Hyoung-Woo Chung; tel: +33 1 45 24 92 79 e-mail: hyoung-woo.chung@oecd.org)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를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